

1963 년 회갑 급우회

Sixtieth Class Reunion of 1963 Graduates

한광수(63)

2023 년 10 월 21 일 서울의 롯데 호텔 연회장에서 18 명의 동기들이 졸업 60 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모교의 한규섭 동창회장님과 김정은 학장님이 참석했다.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멀리 미국에서 여섯명의 부부가 왔다. 우리 학년은 123 명이 졸업했는데 그중 고인이 된 사람이 48 명이고 동문자신이나 부인의 건강상 이유로 대부분 참석을 못했다. 그래도 국내에서 12 명 부부, 미국에서 6 명이 부부동반하여 모였다. 졸업생의 대다수인 80 여명이 미국에서 살게 되었고 다른 학년에 비하여 그 숫자가 가장 많다. 1957 년 문리대 예과에 입학하여 첫수업을 들어간 것이 엇그제같은 데 66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 감회가 깊다. 당시 18-20 세 나이에 우리가 이처럼 80 대까지 산다고 누가 생각했을까? 우선 모국 동문들의 열성(이종욱전 학장, 이홍균동기회장, 신상철 준비위원장)으로 이번 모임도 이루어진 것임을 말하고 싶다.

우리가 입학한 1957 년은 6.25 휴전이 된지 4 년이 된 해이고 아직도 전쟁의 피해와 흔적이 많았다. 요즘 세대들은 잘 모르겠지만 보리고개, 춘궁기가 매년 있었다. 대학생으로 진학하는 것도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부모님들에게 큰 부담이었다. 가정교사 직업을 같이 하면서 학비를 벌어야했던 동문들이 많다. 대부분 1937-1939 년 생인데 경기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에서 50 여명이 들어왔으며 그래도 전국적으로 지방 수재들도 많이 입학했다. 나라의 운명이 변화할 때마다 새로운 교육제도를 경험했던 학년이다. 이차대전 말기의 일본식 국민학교에 입학, 1950 년에는 북한 공산당의 남침으로 피난을 가고 이산가족, 동족 상잔의 아픔을 당한 세대이다. 풍전등화의 어려움 속에서 공부를 어물쩍 하던 중 새로 제도를 도입하여 1951 년에는 전국 6 학년학생이 동시에 연합고시를 치루기도했다. 사변중에는 나의 고향인 인구 30 만-40 만명인 부산으로 150 만명의

피난민이 몰려왔고 같이 살기도했다. 학교건물들은 군함이 병원으로 사용하면서, 우리는 들이나 한때는 양조장 저장 창고에서 600 명이 공부를 했다. 1951 년 6 학년제 중학교가 3 년제 중, 고등학교로 분리되어 우리동기는 1954 년에는 다시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입학시험을 쳤다.

우리학년은 멀리멀리 내다보면서 장례를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그저 주어진 환경에서도 토리가 서로 키를 비교해보는 경쟁을 하면서 앞을 내다보기보다는 옆을 보면서 대학까지 왔었다. 사랑을 속삭이고 원대한 희망을 꿈꾸는 그 젊은 나이이다. 당구를 치고, 짜장면, 빈대떡을 먹고, 막걸리와 소주를 마시고 미국이나 프랑스, 이태리 영화를 볼 수 있는 극장을 가는 것이 커다란 낙으로 여겼다. 졸업 후 목표가 뚜렷했던 친구는 많지 않았고 대부분이 미국에 가서 전문의 수련과정을 끝내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젊은 이들에게는 든든한 국가의 바침이 필요한 것이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수백년간 중국의 속국처럼 살았고 국가의 개념조차 분명치 않았다. 대부분의 정치 지도자가 백성들의 복리복지를 소홀히 취급한 이씨조선이 결국 저절로 망하여 일본의 팽창주의 (Pan-Asianism)의 영향으로 그들의 식민지로 되었다가 2 차대전에서 일본의 패망으로 남의 덕분에 새로 세워진 민주공화국이 되었다. 이때 만들어진 한국의 운명과 역사는 우리가 만든 것이라기 보다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Ideological warfare 의 틈바구니에서 생겼지만 남북의 분단이 되는 비운을 격게 되었다. 우리세대는 나라의 혜택을 받기보다는 각 개인의 의지와 노력이 유일한 도구였다. 남북분단에서 6.25 전쟁 후에는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적 도움이 500 년동안 망쳐버린 이씨조선보다 국민의 복지와 교육에 더 보탬이 되었다. 그래서 흔히 쓰는 뺨(nepotism), 부패(Corruption), 보리고개, 빈곤을 겪고 있었던 연약한 민주주의 대한민국이었지만 그간 미국의 도움과 우리들의 땀과 피와 노력으로 경제적으로 자립한 나라가 되었다. 국가에서 주는 혜택만을 바라지 않고 국민 각 개인이 노력하려는 의지로 우리의 경제가 발전한 것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

Minnesota Plan 으로 미국 생활과 미국 의과대학의 교육제도를 배워서 온 교수님들과 독일에 가서 연수를 하신분들의 강의와 Slide Show 에서 보여준 외국의 풍경을 보면서

우물안의 개구리 같은 급우들이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우리가 쉽게 발음하던 페니스(Penis)도 해부학 김재남 교수 덕분에 피느스가 정확한 발음인 것을 배웠다. 본과 1 학년 생화학 첫번째 시험에서는 90 여명이 빵점을 받고 해부학에서는 2/3 가 재시험을 치루면서 의과대학 입학 Initiation Ceremony 를 톡톡이 치렀다.

졸업 후 가는 길은 두가지였다. 수련과정을 미국에 가서 하던가, 아니면 국내에서 하던가, 보건대학원을 하던가였다. 전자는 해외출국자격의 첫째 조건인 군복무를 끝내야 했다. 마산에서 군의학교 훈련중인데 충격적인 소문이 들렸다. 그 취지는 군복무 이전의 5 년의 수련과정을 국내에 한정시키는 것보다는 미국같은 나라에서 수련을 먼저 받은 후 돌아와서 군복무를 마친다는 것이다. 아주 좋은 제도 같았지만 결과적으로 군복무를 슬쩍 빼고 미국같은 다른나라의 시민이 되면서 대한민국정부와의 약속을 무시했다. 당시의 육군의무감이었던 육군소장 김수명이 만든 Kim's Plan 이라는 새로운 제도였다. 그 약속을 어겼다고 누가 처벌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일이 없다. 80 여명의 급우가 1964-1972 년 사이에 미국으로 수련과정을 시작하러 왔다. 그 중에는 이미 수련과정을 끝내고 와서도 다시 시작한 동문도 께 있었다. 대부분 취직자리가 쉬웠던 동부, 중동부의 큰도시의 Teaching Hospital 에서 수련의 첫 과정인 Internship 을 시작했다. 사회생활 풍습의 차이점과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면서 Boston, NY City, Baltimore, Philadelphia, Detroit, Ohio 의 도시에 주로 자리를 잡았다. 1971 년 뉴욕시에 살던 20 여명의 동기들과 가족을 합쳐서 60 여명이 망년회를 나의 Brooklyn 아파트에서 했었는데 그날 신발을 정리하던 일이 제일 힘이 들었다. 잊을 수 없는 추억이다.

1960-80 년 동안 미국사회도 많이 바뀌었다. 유색인종문제, 월남전쟁, 학생들의 반정부시위, 대대적인 반정부 인종차별에 대항하는 시민운동, 차별적이었던 의료혜택의 보장, 남녀차별에 불만을 가졌던 여성자유운동, 시민들의 Social Liberalism, Free Sex 주장으로 사회가 조금 어수선한 때였다. 쉽게 끝날 것으로 예상한 월남전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날 수 없으면서 학생들의 반정부활동이 확산되었다. 국제적으로도 중동문제, Oil

Shock 으로 미국이란 나라가 힘들었던 때였다. 이무렵 몇가지 변화가 미국내에 일어났다. 1965 년 이민법이 바뀌면서 동양사람들에게 차별대우가 없어졌다. 미국의료법도 바뀌어서 면허를 받기가 쉬워졌다. 특히 월남전이 확산되면서 미국의대졸업생들이 징집이 되어 우리가 필요했다. 1965 년 경부터 Medicare, Medicaid 가 생겨나서 환자들이 쉽게 전문 의사를 찾았다. 이민법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되어 수련이 끝나면 미국시민으로 머물수 있게 되었다. 전공에 따라 다르지만 수련을 받은 지역의 근처나 인접한 소도시에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미국사람으로 변해갔다. 넉넉한 수입의 보장과 의사로서 받는 대우에 만족하면서 살았다. 그래도 외국인이라는 차별대우는 가끔 극복해야됐다.

미국에서는 1960-1980 년 경에는 전문의보다 일반 가정의사 General Practice 가 중. 소도시에서 활동했다. 1965 년 부터 의료법이 바뀌어 전문의 활동이 요구되었다. 당시 인종문제, 반전 학생데모, 특히 마틴루터킹 목사 사건, 월남 전쟁파병 등으로 어수선한 정국이었다. 경쟁이 심하지 않은 작은 도시로 정착한 동문들은 성공했다. 한국을 떠날 때 200 불을 수중에 들고 온 사람으로서 대부분 자식들을 잘 교육시키고 현재에는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고 있다. Academics and Research 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한 분들 중에는 이병봉 George Town University Hospital, 김태형 Emory University, 최찬혁 Harvard University, 백남하, 박병학, 등이 있고 한기현은 Chair of Residency Program, Otolaryngology, New Jersey Medical School 로서 오랫동안 명성이 알려져있다. 대부분의 동기들은 60-80 세 사이에 은퇴한 후 기후가 적당한 California, Virginia, Florida, Georgia 로 이사했다.

모국에 남은 국내파 동문들에게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의료혜택의 팽창으로 의사의 입지가 높아졌다. 모두들 많은 후학을 지도하고 한국으로 현대의료시스템을 도입하고 의료계를 발전시키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필요에 의하여 많은 의과 대학을 신설하고 수련의교육을 책임졌다. 외국서적을 구입할 달러가 부족했던 나라였다. 나의 전공인 산부인과 분야를 예를 든다면 1990 년대 부터 외국저널이 한국으로 수입되어

읽혀지기 시작했다. 차츰 교환교수 또는 수련의들도 외국 학회에 참석하고 그 연수를 받기 시작했다.

우리 동기중에 의과 대학학장을 역임한 분으로는 모교의 이종욱, 이순용 인제대학, 이종주 한림대학 세분이 있다. 부속대학병원장에는 채수응 경희대학부속 병원장, 이진용 을지대학 부속병원장, 이홍균 백병원장 (인제대학)이 있다. 의과 대학 과장으로는 수 많은 동문들이 새로운 시설과 교육을 위하여 공헌했다. 비교적 국내파가 적은 숫자였지만 우리나라를 위한 사회기여도는 국외파에 비하여 컸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 노고와 훌륭한 업적에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

1963 년 졸업한 17 회 우리는 나라가 일제에 침범당했던 불행한 시기에 태어났다. 일본이 망하고 보통학교에 입학하고 육이오사변과 4.19 학생혁명, 5.16 군사 혁명, 무척 가난했던 시대에 고난을 극복하고 살아남은 세대이다. 우리는 비록 짓밟혔어도 의지와 노력으로 자랑스러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하였고 졸업후에는 각자 세계 방방곡곡에서 의술을 펼쳤다. 우리는 모두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또 의사로서 성공한 것을 자부한다. 모두들 손을 높이 들고 축하를 들자. 가난을 물리친 경제대국이 되었다. 문화적으로도 문예부흥을 일으킨 대한민국이다. 우리나라의 발전에는 1963 년 졸업 급우들의 큰 공이 있다고 자부하고 싶다. 아울러 우리를 그 옛날 어려운 여건에서 교육하고 수고하신 모교와 부모님들께도 감사를 드려야 마땅하다. 80 대 중반까지 도달한 생명이다. 이제 우리가 가야하는 길은 정해져있다. 그래도 남은 하루하루를 능동적으로 살자. 시간만 끄는 가느다란 목숨보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삶을 희망하자. 인생을 잘 마무리하면서 후회없이 살자.

Salute, Graduates of Year Nineteen hundred and Sixty -three!

한광수 (63)

Internship; Providence Hospital Washington DC, 1967-1968

Residency; Downstate-Kings County Hospital, NY 1968-1972

Attending Physician; Coney Island Hospital, Brooklyn, NY 1972-1974

Private Practice; Sylva, North Carolina, 1974-2007